〈제7호〉

함·즐·함·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님의 교회

즐거워 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12:15)

97교회 표어
"예비하라"
(눅 3:4)

발행 : 출판부 (본 선교지는 두 달마다 발행됩니다) 1997년 7월

하나님의 치밀한 예비하심

이 재 철 목사

지난 4월 중 우리의 형제교회로서 창립 2주년을 맞이한 코스타리카 시온 교회를 다녀 왔습니다. 그때 심한 독감을 앓고 있었는데 특히 고통스러운 것은 체온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거듭되는 번열증과 한기였습니다. 열이 오르면 식은 땀이 마구 흐르다가 갑자기 체온이 떨어지면서 주체할 수 없는 한기가 몰려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챙기면서 비행기 속의 에어콘 냉기에 대비하여 긴 소매 스웨터와 소매 없는 조끼를 한 개씩 넣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휴대용 가방인지라 짐을 줄이기 위해 소매 없는 조끼는 두고 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비행기 속에서도 번열증과 한기는 계속 번갈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기가 들 때 스웨터를 입으면 오히려 번열증이 일어나고, 그렇다고 벗으면 한기가 그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온도에서 제게 필요한 것은 소매없는 조끼였지만, 집에 두고 왔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승무원이 사은품을 주었는데, 그 사은품이 소매없는 조끼였습니다. 집에 두고 온 조끼와 색깔마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조끼 덕분에 무리한 일정에 강행군을 하면서도 체력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코스타리카에 도착하여 첫날 집회를 시작하기 전 숙소에서 면도를 하던 중 면도기의 작동이 그만 멈추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1.5V짜리 배터리 2개를 넣는 초소형 면도기였는데, 배터리가 다 소진된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스타리카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하던 중 그곳에서 만난 교우님이 기념품이라며 주었던 조그만 상자가 생각났습니다. 가방 속에서 상자를 찾아 끌러보니 아니나 다를까 면도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예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코스타리카를 떠나기 전날 밤 그곳 장로님 댁에서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젊은 집사님의 차를 타고 장로님댁으로 갔는데, 그 차의 뒷 트렁크에는 우리 일행의 여권과 항공권이 든 가방과 짐이 들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려는데 자리에 앉아 있던 또 한 분의 노 장로님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들어온 그 분은 코스타리카에는 잡범들이 많아 혹시나 싶어 그 차 뒷 트렁크에 실려 있던 우리 짐을 집안으로 옮겨 두었다고 했습니다. 식사가 다 끝나고 나갔을 때, 놀랍게도 길 양옆에 세워져 있는 그 많은 차들 중에 유독 우리가 타고 갔던 차의 유리창이 깨어진 채 뒷 트렁크가 열려 있었습니다. 만일 노 장로님이 짐을 집안으로 옮겨 놓지 않았더라면 여권과 항공권을 잃어버린 우리의 일정은 엉망이 되어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코스타리카에서 LA에 도착하던 날 밤, 미국 남가주 주님의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남가주 주님의 교회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학교 강당을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에 도착해 보니, 그날의 집회장은 강당이 아닌 체육관이었습니다. 학교 측에서 그날 밤 강당을 쓸 일이 있어 부득불 체육관을 사용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 교회측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날 집회에 참석한 분이 약 70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평소처럼 400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 강당에서 집회가 열렸더라면 300여 명이나 되돌아 가야 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에 따라 미리 취하신 신비스런 조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 비해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형편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보다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중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려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책임져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어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행복과 평강도 그리고 사회 정의도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나를 망치는 화근도 남을 해치는 독소가 아닌 모두를 살리는 참된 은총, 영원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97.5.18 성령강림주일 설교 〈유대인의 왕〉 중에서 발췌)

바이올렛과의 만남

김성식 전도사

바이올렛이란 꽃 이름을 처음 안 것은 대학 1학년 어느 봄날이었다. 그 꽃이름을 내게 알려준 사람은 같은 학년의 여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내 딸들의 엄마가 되었다.

그런데 이 바이올렛이 작년 봄 신대원에서의 마지막 봄을 보내던 나에게 우연히 다가와 커다란 교훈을 주었다. 햇살이 아주 눈부시던 작년 봄 어느날이었다. 신대원에서 보내는 마지막 봄이라는 가벼운 감상에 구내식당에서 혼자 점심을 먹은 후 교정을 돌아보며 신학함의 의미를 되새겨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곳저곳을 천천히 걷던 나의 발걸음이 마침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기념탑이 서 있는 작은 동산 뒤로 나 있는 오솔길을 지나고 있을 때였다. 돌계단 구석에 외롭게 피어 있는 바이올렛이 시야에 들어왔다.

외로운 모습이었지만 어느 다른 바이올렛보다 예뻐 보였다. 홀로 피어 있기에 더 아름다워 보였는지도 몰랐다. 가까이 다가가 허리를 숙여 꽃을 들여다보던 나는 그만 흠칫 놀라고 말았다. 돌계단 틈의 흙에 뿌리를 박고 있겠거니 생각했었는데, 그 바이올렛이 자라고 있는 자리는 계단과 계단 사이의 직각으로 꺾여진 곳으로 조그만 틈도 없이 깨끗하게 시멘트로 마감되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대체 이 바이올렛이 어디에 의지해서 꽃을 피우고 있는지 궁금해진 나는 꽃의 주변을 살펴보았다. 꽃은 한 숟가락 분량도 되지 않는 적은 양의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인부들이 일을 하다 흘린 한 덩이의 흙이거니 생각했었다. 그런데 흙의 색깔이 회색에 가까워 보이기에 의아한 생각이 들어 손가락으로 살며시 눌러 보았다. 그랬더니 그 흙은 먼지처럼 부스러지는 것이었다. 나는 곧 바이올렛이 생명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한덩이의 흙도 되지 못하는, 신발에서 떨어진 흙먼지가 모인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황토빛이 아니라 회색빛이었던 것이다.

물끄러미 바이올렛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 속에 생명에 대한 외경이 뭉클 솟아났다. 이 보잘 것 없는 한 포기의 들풀도 이렇듯 치열한 생존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는 사실에서 창조의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의 풀에게 주신 생명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바이올렛의 외로운 싸움에 비하면 사람이 치르는 삶의 싸움은 그것이 아무리 외롭고 고독하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행복한 싸움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왜냐하면 사람에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아니한가!

이러한 감탄과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 자신이 마치 이 바이올렛처럼 살아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 보시기엔 마치 신발에서 떨어진 흙먼지 같은 이 세상의 것들에 목을 매고 살아온 것이 나의 지나간 삶이 아니었던가 하는 연상이 스쳐 지나갔다. 아니 오히려 인생 그 자체가 흙 먼지가 아니던가. 흙의 먼지로 만들어진 인간이 흙의 먼지 같은 것들에 의지하여 들풀처럼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던가.

그래서 하나님께선 이사야를 통하여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사 40:6),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땅의 먼지로 만들어져 먼지 같은 것에 의지하여 자신이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계단 구석의 바이올렛처럼 시들어 버릴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에 어떤 환경에서라도 아름다울 수 있고 또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을, 계단 구석에서 힘겹게 피어나 나의 시선을 사로 잡았던 그 바이올렛은 그 연약한 몸과 꽃으로 나에게 외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신학함의 뜻을 구하던 나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메시지였다. 사람들에게 인생이란 허무함을 깨우쳐 주되 허무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아무리 힘든 자리일지라도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워낼 수 있음을 전해 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

올 봄에 바이올렛을 처음 본 것은 교회 맞은편 경복 아파트에 살고 있는 병상의 교우를 심방하러 가는 길에서였다. 아파트 현관 입구 잔디밭에 조용히 피어 있는 바이올렛은 다시 나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아름다운 삶의 꽃을 피우고 계시겠죠?,

이 글을 읽으시는 교우님들께도 바이올렛이 나에게 속삭였던 말들을 들려 드리고 싶다. 지금 서 계신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주님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성도님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실 것을 믿기에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저희가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여화와께 부르짖으매 광풍을 평정히 하사 …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시편 107:25~30)"

샬롬.

아침의 기도

배경란 집사〈시인〉

산속에 길이 있어
나뭇잎의 푸르른 향기, 물소리 따라
나비 한마리 나르고 있나이다

주여, 오늘도 시간의 숲속, 세상의 숲속을
당신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에
기차가 선로 위로만 달려가듯
인생이 온전히 당신을 따라
이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맑고 부드러운 하늘, 대지 위에
아름다운 태양빛이
가득하옵니다.
빛이시며 사랑이신
주여!
당신의 사랑의 전기
이 땅위에 가득하오니
어두운 병실, 당신의 자녀들의 환부(患部)위에
전류처럼 뜨겁게 흐르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
고통과 슬픔중에 있는 자들을
주여, 불로 태우시고
물로 씻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권하고 싶은 책

〈자녀를 생각한다〉
▲엄마, 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건숙 지음
▲믿음의 육아일기 사도일기 나현숙 지음
▲아이에게 배우는 목사 아빠 이재철 지음
▲실베스트로 나의 왕자 강금희 옮김

〈 부부, 가장 아름다운 이름〉
▲너의 남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양은순 옮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김성일 지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프로포즈 조연경 지음
▲사랑은 스스로 지치지 않는다 정미애 옮김
▲질그릇 속의 보화 김애진 옮김
▲그을음 없는 화촉의 밤에 이혜자 지음
▲부부의 십계명 전택부·윤경남 지음
▲가정의 뜻 전택부 지음
▲가정, 그 선한 싸움의 현장 이근호 지음
▲남자의 성 유선영 옮김

〈부모님을 생각한다〉
▲어머니는 바보야 윤문리 지음
▲노년학을 배웁시다 윤경남 지음

얼 굴

이수영 성도

욕망과 교만과 외곬의 뒷머리와
빈손으로 마주 앉은 앞머리 사이에서
허무의 골짜기와 죽음의 강을 내다본다.
무지개를 잡으려고 땅끝으로, 땅끝으로…
미끄러지는 물방울을 움켜 잡으려
뒷걸음쳐서 바라보이는 큰 바위 얼굴, 얼굴
안개 덮인 산과 호수 사이에 외딴 꼬부랑 길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가리워진 연무(煙霧)
속으로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마다 펼쳐지는 한 길
열어주시는 길 좇아 보여주시는 얼굴 좇아
닦아 놓으신 그 길로 나아간다
그림자 벗기워진 빛나는 그 얼굴을 마주할 때까지

생각하며 사는 삶

전세표 집사

〈1남선교회〉

"탈무드에 『사람의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인 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두배로 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가볍고 하기 쉬운 말 한마디 보다 가슴에서 우러 나오는 진실되고 소박한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숙이란 단어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참으로 다양하다. 푸르름을 발산하며 나날이 팽창하고 있는 수목의 나이테, 하늘을 찌를 듯한 청송의 당당한 기개, 꿈과 이상을 향해 젊음을 불사르며 전진을 거듭하는 청춘의 성숙이 있고, 가을의 낙엽을 밟으면서 삶을 회고하고 인생을 갈무리하는 황혼으로서의 성숙도 있다.

이처럼 만물의 생성, 성장과 더불어 인간 또한 시간의 경과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연륜을 쌓아 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섭리인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 이 과정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은 정신적, 내면적인 성숙일 것이다. 우리는 평상시의 생활 주변에서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보기에 지나친 듯한 정신적 고뇌를 가진 인생을 논하고, 철학을 이야기 하며, 그리고 자신의 깊고 오묘한 사상을 토로하는 그런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는가 하면, 외적인 나이는 충분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고 미숙한 사고를 해나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다.

이 두 부류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는 단언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도 나이와 정신적인 성숙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즉 짧은 인생에서 나이와 조화를 이룬 정신적인 성숙으로 많은 사색을 함으로써 이로 인해 삶을 보다 폭 넓고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더욱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많은 사색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관, 종교관, 세계관을 다듬고, 그 사상들을 현실생활에 합리적으로 투영시키면서 다양하고 멋있는 사회생활을 창조해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하고 보람 있는 삶이 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자기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뒤따라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많은 분야의 독서를 하고, 선배 제현들의 조언을 잘 소화시키며, 많은 사색과 함께 정신적인 고뇌를 아름답게 일상 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깊고 넓은 대화를 통하여 올바른 삶의 진리를 깨우치고 이를 실천하는 정신적인 성숙을 쌓아 나가야 할 것이다.

유대인들의 고시(古詩) 탈무드에"인간의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인 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두배로 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정신적인 성숙과 깊은 사고의 측면에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다. 가볍고 하기 쉬운 말 한 마디보다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되고 소박한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깊이, 그리고 자주 되새겨야 될 말인 것 같다.

물질만능 사회에 편승하여 우리들의 정신 생활이 매우 혼란스러운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더욱 많은 사고와 정신적인 수양을 통하여 확고한 자기의 관(觀)을 확립하여야 하며 나아가서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생활면, 특히 정신적인 면에서 보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자기의 삶을 개척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해 본다.

원고를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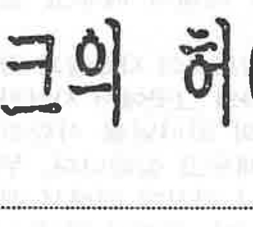
출판부에서는 교회소식지인 함즐함울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성도들에게 알리고 싶은 글,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글, 각 교회 부서에서 알리고 싶은 기사를 기다립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연락처는 출판부장 조원호집사(전화 3473-6256, FAX 581-2281) 또는 천경우집사(722-4714)로 연락주십시오.

허리 디스크의 허(虛)와 실(實)



서경배 집사

(의사·서경배재활의학과)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유난히 불안해 하면서 진료실에 들어온다. 하지만 진찰을 하고 나서 디스크가 아니라는 설명을 해 주면 금방 표정이 밝아진다. 환자가 디스크에 대해 쓸데 없는 걱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에 알려져 있는 의학상식 중에는 근거 없는 것들이 많다.

거짓말일수록 솔깃하게 들리고 그럴 듯하게 포장되는 것 같다. 디스크는 요통의 한 가지 원인일 뿐이다. 그에 관련되어 일반에 퍼져 있는 잘못된 상식들을 짚어서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나자.

–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에 이상이 있다?

그렇지 않다. 디스크에 이상이 있는 허리병은 10% 미만에 지나지 않는다. 흔히 말하는 디스크는 정확하게'추간판 탈출증,이란 질환을 의미한다. 척추마디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추간판이 제 위치를 벗어나서 주변에 있는 신경을 다치게 할 때 '추간판 탈출증,이란 진단을 붙인다.

허리 통증의 원인을 보면 디스크보다는 근육이나 인대의 손상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며 치료도 쉽다. 따라서 허리의 통증이 있다고 무조건 디스크를 걱정할 일은 아니다. 물론 임의로 진통제만 복용하거나 파스를 붙여서 병을 키우는 일은 피해야 한다.

– 디스크는 나이든 사람에 잘 생기고 젊은 사람에게는 드물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생긴다. 퇴행성 변화로 인한 허리통증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되지만 디스크 질환은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디스크는 활동이 왕성하고 그래서 허리 움직임이 많은 20~50대 연령층에서 더 많이 문제를 일으킨다.자세가 나쁘고 허리에 유연성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특정 디스크에 부담이 집중되어 탈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 디스크 질환은 수술로 치료해야 한다?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전체 디스크 환자의 5~10% 정도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도 2~3개월까지는 우선 보존적 치료를 시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충분한 기간의 보존적 치료를 계속할지 수술을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결정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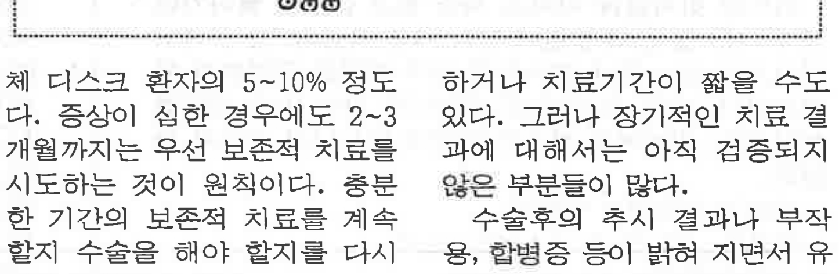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 기준으로는 수개월 이상의 충분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나 극심한 통증이 계속될 때, 디스크의 압박으로 신경이 눌리는 현상이 점점 심해질 때 등으로 이 때는 다리의 감각이 변하고 힘이 약해지거나 소대변의 실금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극히 일부이므로 디스크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미리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즉 90% 정도의 대부분 디스크 환자는 보존적 치료에 좋은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디스크 환자의 70%정도는 4~6주간의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현저한 증상의 호전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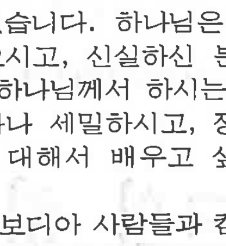
– 고전적인 수술은 위험하지만 새로운 수술방법은 안전하고 결과가 좋다?

새로운 수술방법에는 분명히 장점이 있다. 수술방법이 간단하거나 치료기간이 짧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치료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

수술후의 추시 결과나 부작용, 합병증 등이 밝혀 지면서 유행처럼 번지던 수술방법들이 사라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디스크 치료에 관한 한, 아직도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그리고 충분히 시도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여행에 부쳐



임혜정 양

(청년 2부)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과거에 이 말씀을 보고 낙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나에게는 능력도 없고, 열정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난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더 앞섰엇습니다. 어쩌면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이 더 큰 이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알고,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또한 그 분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선교 여행은 배우는 자세로 가야 한다"고 작년 중국 단기 선교 여행팀에게 이재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도 배우는 시간이 되길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얼마나 세밀하시고, 정확하신지에 대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사람들과 캄보디아 문화와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 대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 또 하나의 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방법을 세워가는 젊은이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신뢰하렵니다. 기도 해 주십시오.

〈주요 일정〉

기아대책기구와 연합해서 갑니다.

총인원 17명, 주님의 교회 11명입니다.

1. 우물 사역지 방문
2. 어린이 운동회(운동 경기, 설교, 드라마, 찬양과 율동, 간증)
3. 크리스천 그룹 방문(예배, 설교, 특송, 간증, 축호 전도)
4. 크리스천 60명을 위한 수련회(예배, 간증, 설교, 신구약 개론, 하나님의 속성, 예수의 유일성, 창세기 5회 강의, 성경퀴즈)
5. 기타 기아대책기구의 여러 사역지 방문 등

(모든 모임의 말은 영어로 해야 함)

〈기도 제목〉

1. 사건과 사고, 질병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2. 함께 가는 팀원들이 한마음이 되게 하소서.
3. 좋은 강의가 잘 준비되게 하소서.
4. 언어로 인한 장벽이 없게 하소서.
5. 캄보디아를 배우고, 사랑하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6. 돌아와서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절망적이라구요?

어느날 회사일을 마치고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나는 집 근처 공원에 잠시 차를 세웠다. 그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네 꼬마들의 야구 경기를 구경하기 위해서였다. 일루 쪽 벤치에 앉으면서 나는 일루 수비를 보고 있는 아이에게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고 소리쳐 물었다.

아이는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가 14대 0으로 지고 있어요."

내가 말했다.

"그래? 그런데 넌 그다지 절망적이지 않아 보이는구나."

그러자 아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하고 내게 말했다.

"절망적이라구요? 왜 우리가 절망적이어야 하죠? 우린 아직 한 번도 공격을 하지 않았는데요."

잭 캔필드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중에서

하나의 목적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짧습니다.
앞에 두개의 건초 더미를 놓고
어느 것부터 먹어야 좋을지 결정을 못 내려
굶어 죽었다는 당나귀 같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과 같은 인격을 갖추겠다는
하나의 목적에만 우리 모두의 힘을 집중합시다.
그러면 이러한 인격이 자주 전염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인격을 갖춘 사람들로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독방에서의 설교, 중에서 〉

주님의 교회 창립 9주년 맞아 기념예배

지난 6월22일 주일은 우리 주님의 교회가 창립 9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날 저녁7시 찬양예배 시간에는 YMCA4층 강당에서 윤학원 장로 지휘로 인천시립합창단의 연주회가 개최됐다. 한편 이날 낮 3부예배 시간에는 장로·안수집사·권사 취임식이 있었는데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장로=성백술·김경신·한윤경·권오승 ▲안수집사=김성배·김경빈·정양재·윤좌원·류달현·최창섭·김성구·유중화·최상인 ▲권사=윤응자·이혜자·이승애·양한민·변아경·김은정·김원경·김경희A·김영아·권미희

일본 TAMA 합주단의 편지

다음 편지는 지난해 12월1일 저녁 찬양예배를 통해 만돌린 연주를 하여준 일본 TAMA 지방의 만돌린 합주단이 첫 한국 방문과 더불어 생전 처음 주님을 위한 찬양예배를 드리고 귀국하여 보내온 편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국 여행 때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들 모두에게 좋은 사진과 비디오테이프를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일 가까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불행한 역사로 인해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는 불안했고, 우리들의 만돌린 연주가 어떻게 받아들여 질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음악을 통해서 인종도 국경도 초월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부터의 따뜻한 박수로 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 깊은 찬송가를 듣고 무언가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의 울림 때문에 우리 일행 모두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2박 3일의 짧은 여행이었으나 언제까지나 마음에 깊이 남을 멋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한국을 아주 좋아하게 되었고 처음 먹어본 한국 음식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와같은 교류를 통해서 앞으로 뜻깊은 만남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북한 동포를 위한 사랑의 쌀 보내기

본 교단 총회 주관하에 진행하고 있는 쌀보내기 운동에 우리 교회는 쌀 100가마니 분에 해당하는 1천5백만원을 송금했다. 특히 형제 교회인 뉴질랜드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이동규 목사)에서도 뉴질랜드 달러 15,000불(한화 910만원)을 송금해 왔다.

「97교구별 수련회」 열려

횡성수련원,7월28~8월1일

97년 교구별 수련회가 7월28일(월)부터 8월1일(금)까지 강원도 횡성수련원에서 열린다. 교구별 참가일정은 1~3교구=7월28~30일, 4~6교구=7월30~8월1일 이다. 일정변경이 불가피한 교우는 원하는 기간에 참가할 수 있다.

사랑하는 남편 초청의 밤

문화부·전도부 공동개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매년 문화부와 전도부가 공동 주관하는「사랑하는 남편 초청의 밤」행사가 올해도 지난 6월26일(목) 저녁 7시30분 르네상스호텔 3층 다이아몬드볼룸에서 개최 되었다. 이날 이 행사를 통하여 주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교 인 동 정

〈이민〉
▲유병용·민희자집사: 캐나다로 6월17일

〈이사〉
▲박화순집사: 강남구 대치동 미도A 21동 304호
▲나형빈·강영은집사: 송파구 가락2동 이조빌라A동 301호 ☎407-1014

〈출산〉
▲최귀옥·김연희A집사: 차녀 득녀(정수)

〈결혼〉
▲박영호집사·이은희성도: 63구역

〈출국〉
▲한 경성도: 8월 출산 위해 뉴질랜드 부모님 방문
▲이정윤·유희숙집사: 미국으로 다시 돌아감
▲신면호·황경이성도: 연수차 도미
▲서미숙집사: 미국, 7월중순경 귀국
▲신서영양: 신영무집사 차녀, 학업차 도미

〈입원〉
▲김영린성도 아들 수빈: 시신경암(신촌 세브란스)

〈개업〉
▲박혁동집사: 서울이비인후과 분당 서당동 효자촌 한라쇼핑304호 ☎0342-701-4312

컴퓨터 종합병원
■진료과목 : 대형 컴퓨터, PC프린터, 모니터, 스캐너, 키보드, UPS ■수리비 : 1대당 5만원 ■응급실 : ☎542-7773전화주시는 즉시 구급요원 비상출동(앰뷸런스 운영). 〈에이-원 컴퓨터 종합병원 대표 이종석 집사〉

북녘을 위한 기도

연길에서 한 시간 정도 택시를 타면 도문에 다다를 수 있다. 한국의 관광객이라면 대부분 이곳을 들르게 된다. 북한 땅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도문 국경 다리를 건너자마자 큰 산이 가로 막고 있는데"저 산너머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궁금하기 짝이 없다.

인민폐 10원을 주고 망원경을 빌려 다리건너 모습을 살살이 훑어 보았다. 층집(아파트)에는 창문마다 유리가 하나도 없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산중턱에"속도전"이라는 글씨가 오늘 따라 유난히 크게 보인다.

지난 겨울에 북의 동포들이 굶어 죽어 가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두 끼를 금식하며 그들의 배고픔에 동참했던 딸의 모습이 다시 그려진다. 그때와 지금이 또 천지 차이인 것을 느낀다.

연길의 조선족들을 만날 때마다 북의 동포 얘기요, "하루에도 몇사람이 죽어 나가고 있는지 헤아릴 수가 없다"는 얘기가 무성하다. "시장에서 사람 고기를 판다"는 등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 우리 귓가를 때린다. 가슴이 저미고 멍이 드는 소식뿐이다. 어제는 평소 절친하게 지내고 있는 조선족 친구와 저녁을 같이 했다.

열흘 전에 북에 들어갔다 왔는데 또 북에서 연락이 오기를 "먹을것 좀 가지고 빨리 들어와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친척들이 개성에서 보름 동안 걸어서 남영에 도착하였다"고 그는 말했다.

어떻게 연락이 되었냐고 물었더니"북에서는 지금 워낙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국 변방쪽으로 몰려오기 시작하며, 남영에서 연길까지는 돈을 내면 전화를 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나마 연길에 친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이동의 자유도 제대로 없는 저 너머 땅에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몇날 며칠이라도 산과 들을 헤매야 하는 저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옥수수가루, 밀가루를 집어지고 달려가고 싶은 심정이다.

차라리 조선족으로 신분을 탈바꿈하고 싶다. 내가 조선족이라면 저곳에 가서 비참함과 참담함 속에 있는 단 몇 명의 목숨이라도 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50m도 채 안되는 두만강을 건너갈 수 없는 현실이 밉기만 하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민족을 이대로 놔두실 것인가? 이념과 정치에 우선되는 것이 사랑이 아닌가? 우리에게는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이 없어서 통일을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망원경을 주인에게 돌려 주고 난 후 연길로 향하는 차안에서 줄곧 기아의 어린이들과 노인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며 그들의 신음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연변에서 ○○○ 전도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

고명수 목사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선교사〉

저는 작년 12월16일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짐을 분실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구나 선교회 본부의 재정이 매우 취약하여 이곳 선교의 필수품인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어 도저히 선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적마다 주님의 교회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염치불구하고 주님의 교회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선교비를 지원하여 준다는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아직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뜨겁게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어디를 가려면 외국 선교사들의 차를 빌어 사용하였으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종에게 권위도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한국 선교사의 체면이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차를 빌어 달라고 하면 언짢은 기색을 하며, 선교의 필수품인 차도 없이 선교하러 왔냐고 되물어 올 때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을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할일은 죽도록 충성하며 순교할 수 있는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계신 분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선교의 알찬 열매가 맺어지기 위하여 사명을 다하도록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의 간곡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그리 아름다운고."이사야 52:7

1997. 5. 23.